國樂科 敎育의 現況과 問題點

李 成 千
(서울大 國樂科)

1. 國樂科 敎育의 特性

國樂科의 敎育은 國樂에 관한 전반적 교육을 말하며 따라서 국악이 專攻의 對象으로 되는 교육이다.

국악은 韓國音樂의 준말로 알려져 오고 있으나, 국악이란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開化期에 있어서의 音樂思潮는 西洋音樂에 대한 '나랏음악'이라는 보다 주체적 입장에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악은 '나랏음악'을 의미하며 그러한 입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랏음악'으로서의 국악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文化와 함께 형성되어 고유성을 保持하고 있다. 서양 음악이 성장한 서유럽의 경우 도시 중심 밖의 시골 음악은 그들의 국악인 것이다. 유럽의 도시 음악을 제외한 시골 음악과 세계 각 민족 음악이 국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17 세기로부터 民族音樂學(Ethnomusicology)이라는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국악은 그 민족 또는 국가의 傳統音樂이다. 하나의 국가가 單一民族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국악은 국가의 이름을 붙여 中國傳統音樂과 같은 분명한 명칭을 붙여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악이라는 汎稱보다 韓國傳統音樂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므로 初·中等學校 敎育課程에서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악과의 교육은 한국 전통 음악은 물론 세계의 민족 음악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傳統文化의 存在行爲에 있어서 發掘—保存—繼承—發展의 네 단계에 속한 모든 음악을 교육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악과의 명칭은 국악의 용어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나랏음악'의 뜻보다 民族音樂科 또는 種族音樂科라고 改稱되어야 적합할 것이다. 이것은 (西洋)音樂科의 교육 내용이 서유럽의 도시 음악 양식으로 創作된 모든 음악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음악에 있어서의 專門的 行爲는 作曲, 演奏, 理論으로 분리된다. 연주는 聲樂과 器樂으로 나뉘고 이론은 純粹理論(音樂學 또는 民族音樂學)과 敎育學으로 세분될 수 있다. 국악과의 전공도 作曲·聲樂·器樂·理論으로 분리되었고, 성악은 正歌와 俗歌, 그리고 기악은 대금·피리·해금·가야금·거문고로 세분되는데 따로 打樂을 분리한 대학도 있다.

2. 國樂科의 設置

1910 년 梨花學堂 大學部에 音樂科가 생긴 약 半世紀 후 1959 년 서울大 音樂大學 國樂科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다음 〈표 1〉은 1986 년도 현재 전국 각 대학에 국악과가 설치된 연도와 學

〈표 1〉 全國 各大學 國樂科 現況

	대학(교)	소속 단과 대학	설치연도	졸업정원	전임교수
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1959	30	5
2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1972	30	4
3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1974	30	5
4	추계예술학교	음악학부	1974	30	3
5	서울예술전문대학		1980	30	2
6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1983	30	3
7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1983	30	5
8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1983	30	4
9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1983	30	5
10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1984	30	3
11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1984	30	5
12	전주우석대학		1985	30	2
13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1987(인가)	30	1
	계			390	47

生卒業定員을 나타낸 것이다.

국악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韓國音樂學의 成立이다. 한국 전통 음악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쉽게 理論이라고 하는데, 理論分野는 단편적 硏究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연구는 단편적이면서도 개인에 국한된, 연구의 相互交換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학문으로서의 연구에는 미흡했었던 것이다.

講義을 위해서 敎授는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론을 定立시켜야 하고 學生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면서 결국 졸업 후에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오늘의 韓國音樂學을 성립시킨 것이다.

둘째로, 聲樂과 器樂實技의 質을 向上시키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향상은 無條件的 교육이 아니라 反省과 批判的 意識下에서의 교육을 뜻한다. 과거의 口傳에 의한 暗譜로서의 교육은 그 음악을 傳授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음악을 理解하고 感得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自覺的 感應이라는 藝術敎育과는 많은 거리가 있으므로, 교육하기 위해 樂譜化하고 이 악보를 통해 不完全하나마 자각적으로 감응케 함으로써 음악을 이해하며 批判力을 기르게 되고 보다 合理的 思考로써 演奏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과거의 傳統으로부터 발전된 음악을 創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창작, 즉 作曲이 없다면 과거의 문화가 오늘에 계승될 뿐 오늘의 문화는 형성될 수 없다. 現代人은 현대 문화를 요구하는 이상 과거 문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에 문화가 創造되는 것이다. 새로운 樂曲을 창조하는 행위가 작곡이다. 작곡은 작곡가 스스로 하는 행위이지만 이 음악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작곡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전통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質的인 변화와 量的인 物量이 적었던 것도 작곡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전통 음악은 保存과 繼承에 의한 과거의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을 뿌리로 한 오늘 창조된 음악을 낳아야만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문화가 未來指向的으로 발전하게 되

는 것이다.

네째로, 音樂敎育의 擴大이다. 초·중등 교육은 專門敎育이 아닌 普遍敎育이다. 그러나 이 보편 교육이 교육의 根底가 된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 서양 음악 교육으로만 일관되어 옴으로써 成長期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價値觀이 편협되게 형성될 것이므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세계의 민족 음악을 抱括的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로, 전통 문화의 올바른 價値를 社會에 인식시켜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開化期 이후 우리 사회는 서구 문화를 수용하면서 전통 문화를 格下시킴으로써 서양 음악 優位의 인식이 높아갔다. 이러한 인식은 새로움에 대한 受容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倭政의 文化政策이 주효했었다는 부정적 해석에 同調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교육 내용은 서양 음악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문화 정책은 한국의 얼을 말살시키기 위한 우리 문화 格下에 있었기 때문이다. 現代精神界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화기 이후 약 1세기 동안 韓國人들은 그러한 社會와 敎育에 접했던 관계로 서양 음악보다 한국 전통 음악의 認識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 전통 문화의 沒認識 내지 서양 문화 우위의 인식을 바르고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음악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악과 설치의 의미는 內的으로 한국 전통 음악을 學問과 藝術로서 定立하고 外的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인식을 바르게 提高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다.

오늘의 韓國社會는 두 개의 다른 큰 음악의 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서양 음악이라고 칭하는 西歐都市音樂樣式이며, 다른 하나는 국악이라 칭하는 傳統音樂과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한 創作音樂이다. 이들 음악 중에서 수천 년의 전통을 지켜온 국악보다 백여 년 전에 들어온 서양 음악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종합 대학과 단과 대학 99개교 중에서 국악과가 설치된 大學의 比率이 1.1%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표 2〉는 자세한 분포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 西洋音樂科와 國樂科 設置 對比表

	서양음악(음악교육·종교음악)	국 악 과	대 비
종 합 대 학	30	10	3 : 1
단 과 대 학	23	1	23 : 1
계	53	11	4.8 : 1

종합 대학 42개교 중 30개교에 서양 음악 전공 학과가 있으며 그 중에서 10개교에 국악과가 並設되었다. 단과 대학은 46개 대학 중 23개 대학이 서양 음악 전공 학과를 설치하였고 全州友石大學은 국악과만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도 藝術專門大學 2개 대학에 국악과가 설치되어 있다. 8개 실업계 여자 전문 대학 중 3개 대학에는 서양 음악 전공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22개 국·공립 대학 중 서양 음악 전공 학과와 국악과가 並設된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고 서양 음악 전공 학과만 설치한 大學은 11개 대학이다(敎員大는 제외). 서양 음악 전공 학과의 모집 정원이 3,624명인데 비해 국악과의 모집 정원은 390명으로 거의 10 : 1의 比率을 보이고 있다(3개 女專과 1개 專門大는 제외).

국·공립 대학은 서양 음악 전공 학과의 모집 정원이 784명이고 국악과 모집 정원은 127명으로 그 비율은 6.2 : 1이다. 이는 傳統文化 暢達을 부르짖고 있는 文敎政策을 反映하고 있는 數値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3. 敎育課程

교육 과정에 설정된 교과목은 그 성격상 敎養科目과 專攻科目으로 구분하며 전공 과목에 준하는 敎職科目이 있다. 이들 교양 과목, 전공 과목, 교직 과목은 각각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으로 구분된다. 교직 과목은 교직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履修되어야 할 과목이므로 교과목은 대학마다 큰 차이가 없으나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藝能系의 주요 과목인 專攻實技만은 그 종류가 일정하고 과목 내용도 大同小異하다.

전공 실기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聲樂, 器樂, 理論, 作曲의 네 영역이며, 성악은 正歌인 歌曲, 歌詞, 時調와 俗歌인 판소리, 民謠, 雜歌의 두 분야로 세분된다. 기악은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의 5개 분야별로 세분하여 學年, 學期에 준하여 正樂과 民俗樂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론은 古樂譜解讀, 民俗樂採譜, 現行傳統音樂 및 韓國音樂硏究 등을 학기별로 나누어 이수하고, 특히 現地踏査(field work)를 필수적으로 마쳐야 한다.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音樂과 民俗에 대해 리포트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전통 음악의 發掘作業을 훈련시키도록 한다. 작곡 전공은 작곡에 관련된 학과목과 실제 실습(paper work)을 통해 評價된다. 작곡에 관계된 학과목은 和聲法, 對位法, 音樂分析, 樂式論 등이며, 우선 서양 음악의 기본 이론을 履習시킨 후 전통 음악에 접하게 한다. 서양 음악 이론을 먼저 이습시키는 것은 전통 음악에 관한 작곡 이론이 具體化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藝術形式과 그 文法을 통해 批判力과 自主的 創作能力을 기르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된다.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작곡 능력을 기르면서 獨奏曲→重奏曲→室內樂曲→管絃樂曲과 같은 순서로 작곡하게 되며 제출된 Paper Work로써 평가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국악과이면서도 서양 음악에 관련된 학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이다. 視唱聽音, 私聲法, 對位法, 音樂分析, 樂式論, 音樂史(西洋)이 밖에 合唱, 指揮法, 管絃樂法 등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서 해당 학과목을 이수케 하는데, 여기에는 뚜렷한 目的이 있다. 그것은 서양 음악을 배움으로써 서양을 모방하거나 西洋式의 技巧를 터득함으로 西洋音樂化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二重音樂性(bi-musicality)을 기르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2중 음악성이란 自國音樂은 물론 外國音樂까지 터득한다는 음악성을 말한다. 서양 음악 전공자들보다 國樂專攻者들에게는 長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音樂性인 것이다.

국악과가 자국 음악만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世界民族音樂을 그 敎育對象으로 한다고 할 때 2중 음악성이야말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音樂性인 것이다.

국악과 이수 과목은 전공 실기는 물론 국악이라는 한국 전통 음악에 관련된 성악, 기악, 이론, 작곡이겠으나, 학과목은 國樂關係 學問을 중심으로 西洋音樂關係 學問까지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大學院에서 국악과를 獨立시켜 운영하는 대학은 서울大, 釜山大, 漢陽大, 梨花女大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檀國大, 誠信女大, 中央大 등은 음악과 안에서 統合的으로 교육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원의 전공은 학부에서의 전공만큼이나 세분되어야 하지만, 敎授確保와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인해 理論과 器樂實技, 作曲專攻 정도만 개설되어 있다.

4. 敎育上의 問題點

音樂大學의 교육은 일종의 訓練(training)이다. 音樂家 또는 理論家를 훈련시키는 場이 대학이다. 그 훈련은 感性의 體系的인 교육이기도 하지만, 한편 知性의 合理的 敎育이기도 하다. 감성과 지성, 체계와 합리, 그리고 훈련과 교육이 적절히 融合될 때 비로소 藝術家의 品性을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예술이 탄생되는 것이다.

前述한 대로 音樂專門敎育機關이 설립된 것은 1910년이므로 1世紀도 지나지 않은 짧은 年輪이다. 그러나 先進敎育國의 모델이 항상 있어 왔기에 서양 음악 교육은 그다지 문제점이 露呈되지 않고 있다.

국악과의 교육은 모델이 없다. 서구의 몇몇 국가에서는 音樂學(Musicwissenschaft) 속에 民族音樂學을 다루게 되어 있고, 미국의 몇 개 大學院에서 民族(種族)音樂學科를 설치하였거나, 아니면 대학원 과정에 民族音樂學을 학과목으로서 개설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이것은 서양 음악이 자기네 국악이기 때문이고 민족 음악은 他國의 음악이라는 사실에 연유된 것이다.

국악과라면 좁은 의미로 自國의 傳統音樂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 때 국악과는 西洋文化와 傳統文化가 兩分狀態에 있는 非西歐 즉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나라

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敎育先進國이 없을 뿐더러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국악을 獨立的으로 교육하고 있는 국가도 없다. 따라서 국악과의 교육은 自救的 노력에 의해 수시로 改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여기에 문제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 제기하려 한다.

첫째로, 正統性의 문제가 대두된다. 정통성은 器樂과 聲樂 실기 교육에 국한되는 문제이다.

기악과 성악은 우선 전통 음악을 履唱하는 訓練을 쌓게 되어 있다. 전통 음악 중에서 正樂은 國立國樂院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지만, 분야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民俗樂의 경우 個人에게 정통성이 있다. 즉 人間文化財로 지정받은 演奏人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들을 敎育現場에 흡수하는 어려움 때문에 정통성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바른 藝術的 技巧에 대한 解釋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전통 음악은 정통성에 의해서만 음악적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양 문화가 너무도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잠해 있음으로 해서 연주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音樂이 變質되어 정통성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전통 음악이 바르게 연주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르지 못한 技法이라는 분명한 判斷力을 길러 주는 것은 곧 藝術家로서의 藝術形成 能力을 배양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로, 敎育料資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료는 專攻實技에 관한 樂曲에 해당한다.

發掘—保存—繼承—發展의 文化的 段階가 대학교육에서도 성립된다. 이론 전공은 현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고 그것을 資料化하여 보존하며 論文으로서 體系化시키는 발전의 기능을 배우게 된다. 성악과 기악 전공자들은 이론 전공에서 발굴된 자료와 기성의 전통 음악을 통해 발전에 同參한다. 작곡 전공자는 발굴, 보존, 계승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작함으로써 발전의 文化機能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어 오고 있는 교육 자료는 보존과 계승에 해당되는 전통 음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통 음악 중에서도 正樂과 民俗樂의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데, 민속악의 경우 기악 전공자는 산조 하나뿐이고 성악 전공자는 판소리와 民謠 및 雜歌를 이수할 뿐이다. 그런데 이보다 문제되는 것은 創作音樂의 不足現象이다. 獨唱曲과 獨奏曲이 많이 창작되어야만 교육 자료로 活用될 수 있을 터인데, 가야금 독주곡을 제외하면 독주곡이 많지 않으므로 자료의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성악과 기악 전공자들은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지 않은 敎育環境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세째로, 專攻에 있어서 分野別 分類가 좀더 擴張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작곡 전공은 분리될 성질이 아니고, 이론 전공도 音樂史學과 組織音樂學 정도로 분리시키면 될 것이다. 문제는 성악과 기악 전공에 있다.

성악 전공의 경우, 대체로 正樂과 民俗樂으로 분리되고는 있으나 이 중에서도 민속악 전공이 細分될 필요가 있다. 즉, 판소리 전공과 민요 또는 잡가 전공은 분리되어야 한다.

기악의 경우, 대체로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의 5種의 전공에 국한되고 있다. 이 5種의 악기는 전통 음악 연주에 있어 不可缺한 악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밖에 장구와 같은 打樂器를 비롯하여 아쟁, 양금도 많이 編成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창작 음악에서는 주요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악기에 대한 교육 자료의 부족과 과거 전공자들이 없음으로 인해 敎育者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 專攻으로서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구와 아쟁, 양금은 이미 개설된 전공만큼 자료가 부족하므로 大學 또는 大學院課程에서 교육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악기로 보아서는 개설하여야겠으나 교육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공 개설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악기는 特殊樂器로서 副專攻者의 손에 의하여 다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들 악기의 技巧는 여전히 踏步狀態에 머물게 될 것이다.

네째로, 성악, 기악, 이론, 작곡 전공은 국악

과에 소속됨으로써 特殊分野 敎育에 相互 沮害가 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音樂家는 세심한 技能人이다. 따라서 각각 세심한 特殊性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 음악의 경우 성악과, 기악과, 이론과, 작곡과로 분리되고, 때로는 기악과에서 피아노科와 管絃樂科로 분리되기도 한다. 그런데 국악과는 이 모든 전공을 하나의 科에 所屬시킴으로써 特殊敎育을 할 수 없을 뿐더러 學問的 낭비로 인한 沮害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敎育者의 不足이다. 국악과가 설치된 것은 고작 30여 년의 年輪에 지나지 않는다. 적은 數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 중에서 敎授要員으로 養成된 인원은 극히 소수이므로 敎授不足現象을 빚고 있다. 모든 면에서 資質을 갖춘 교육자가 많아야만 충실한 敎育이 실천될 것이다.

5. 提 言

앞서 敎育上의 問題點에서 몇 가지를 要略·指摘하고 부분적으로 解決策을 부연하였다.

이제 지적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국 음악의 발전을 도모할 人材養成을 위하여 提言하고자 한다.

먼저, 국악과의 敎育機構가 改編되어야 한다. 음악대학 안에 西洋音樂部와 民族音樂部를 두고 민족 음악부 속에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음악학과를 두며 民族音樂敎育科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간혹 몇 대학의 音樂科가 音樂學科로 불리게 되는 것은 잘못된 呼稱이다. 음악학과면 實技가 아닌 理論, 즉 음악을 學問의 領域으로 硏究하는 科이기 때문에 실기인 성악, 기악, 작곡을 교육시키는 科로서는 音樂科의 호칭을 붙여야 한다.

민족 음악 학부 안에 성악과, 기악과, 작곡과, 음악학과(이론), 민족 음악 교육과를 소속시키고 科內에서 전공별로 세분된다면 個別性 있는 음악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국악과를 增設하여야 한다. 국악과가 國內에서만 敎育者를 養成해야 하는 特殊性이 있으므로 국악과의 부족이 곧 교육자의 부족으로 歸着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전국 99개 종합·단과 대학 중에서 9개 대학(2개 예술전문대 제외)에만 국악과가 설치되었고, 53개 대학이 서양 음악 전공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對比로 보아서도 국악과가 더욱 증설될 필요가 있다.

22개 국·공립 대학 중 半數에 해당되는 11개 대학에 국악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傳統文化 暢達을 口號처럼 외치고 있는 文敎·公報行政이 虛像임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국악과의 증설과 함께 大學과 大學院의 在籍數를 增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演奏家, 學者, 作曲家가 사회에 많이 배출되어야만 音樂文化는 풍요롭게 번창할 수 있다. 음악 문화가 번창하면 그것이 곧 大學으로 돌아와 敎育의 內實化를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先進敎育國의 모델도 없으면서 敎育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改善해 나가고 있는 국악과 교육이 몇 가지의 提言으로 充足될 수는 없지만, 문제점 제거는 敎育與件을 개선하고 反省을 換起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악과가 新生零細學科라는 점에서 여건 개선과 교육반성이 남달리 요구되는 것이다. ※